

대도시 산업경제 성장의 기반, 생산자서비스

국민경제의 서비스화

○ Petty-Clark의 법칙과 경제의 서비스화

- Petty-Clark의 법칙에 의하면 경제발전에 따라 산업구조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그리고 다시 3차 산업으로 그 무게 중심이 이동함
-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따라 경제활동의 중심이 물리적인 제품의 생산에서 정보 및 지식의 생산부문으로 이동하여 이른바 경제의 서비스화 또는 소프트화가 진전되기 때문임

○ 선진국들이 경제의 서비스화 선도

-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은 특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들 국가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미 고용에서나 GDP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내외에 이룸
-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가장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지만 전체 고용이나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임

[표 1] OECD 주요 국가들의 서비스산업 비중 (단위: %)

국가	서비스 비중	고용에서의 서비스 비중			GDP에서의 서비스 비중		
		1987년	1997년	비중변화	1987년	1997년	비중변화
캐나다		70.0	73.0	3.0	66.8	71.6	4.8
프랑스		62.2	69.9	7.7	66.9	71.5	4.6
미국		69.9	73.4	3.5	68.3	71.4	3.1
영국		64.8	71.3	6.5	66.1	70.8	4.7
호주		68.1	72.7	4.6	64.9	70.6	5.7
독일		55.4	60.2	4.8	64.0	69.9	5.9
일본		57.9	61.6	3.7	56.8	60.2	3.4
한국		45.5	57.7	12.2	47.2	51.4	4.2

자료: OECD, *The Service Economy*, 2000.

생산자서비스 왜 중요한가?

- 생산자서비스의 정의와 범위
 - 생산자서비스(producer services)란 최종소비보다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 부문을 의미
 - 생산자서비스는 금융, 보험, 부동산업을 의미하는 FIRE산업과 법무·회계서비스, 기술·공학서비스, 연구개발,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등의 사업서비스(business services) 부문을 포함
- 주요 고용기반, 특히 대도시 고용기반으로서의 생산자 서비스
 - 서구 선진국들은 국민경제에서의 서비스 비중 증대와 더불어 1980년대부터 주요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집중을 경험함
 - 예를 들어 미국 대도시들에서는 1980년부터 1988년 사이 전체 서비스 산업이 평균 24.3% 증가한데 비해, 생산자서비스 부문은 무려 50.6%가 증가하여 동기간 동안의 종사자 증가만 해도 4,651천명에 이름
- 타 기업·산업활동에 대한 중간투입요소 제공과 생산성 및 혁신역량 강화
 - FIRE산업은 금융 및 부동산 시장에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키는 매개역할을 하며 자원동원과 관련한 중간투입요소를 제공
 - 사업서비스 부문은 타 기업에 인적자원, 정보, 지식, 기술, 경영, 마케팅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기업 및 산업부문의 생산성과 혁신역량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
 - 사업서비스 중 지식·정보·기술 집약적인 고차 생산자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OECD에서도 정보처리 및 컴퓨터, R&D 및 기술, 마케팅, 기업조직, 인적자원개발 관련 서비스 등 5개 고차 생산자서비스를 ‘전략적 사업서비스’라 하여 그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음

[표 2] 생산자서비스의 주요 부문과 기능

주요 기능	대표적 생산자서비스 부문
자원투입	은행·금융업, 교육·훈련서비스 등
제품·공정의 구상과 개선	연구개발,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생산조직·경영지원	기업관리, 경영상담,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법률 및 회계서비스 등
생산활동지원	품질관리, 기계보수·관리, 자재조달 등
제품판매 및 유통지원	수송, 상업적 중개기능, 마케팅, 광고 등

생산자서비스 왜 성장하고, 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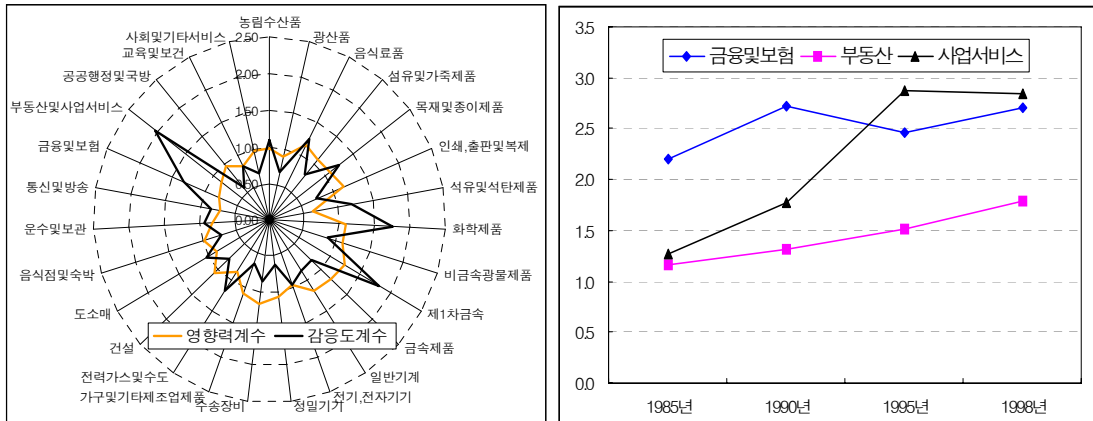
○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성장 요인

- 경제의 세계화로 인한 경쟁심화와 소비시장의 다양화 및 분절화로 인한 시장불확실성 증대로 기업들이 위험성을 외부화시키고, 내부적으로는 핵심활동에 집중하면서 여타 활동들은 외부에서 조달하게 됨
- 즉, 기업 내부에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기업 내적인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소규모화된 기업이 증가함
- 특히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로 전문지식 및 전문화된 서비스가 생산활동을 포함한 기업활동의 가장 중요한 투입요소가 되면서 이러한 전문적인 투입요소들을 생산해내는 고차 생산자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지속적인 상호작용적 학습과정의 필요와 클러스터 형성

- 생산자서비스는 타 기업 및 산업활동에 중간투입요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산성 및 혁신역량을 증대하는 역할을 하므로 [그림 1]과 같이 강한 전방연계 특성을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전방연쇄효과는 특히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그 효과의 정도 또한 점점 더 강화되고 있음
- 이렇듯 높은 전방연쇄효과는 사업서비스(특히 고차 생산자서비스)와 타

기업·산업간에 ‘공급자-사용자간 역동적 상호작용’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사용자 기업 및 산업부문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정보와 기술, 자원 등을 공급하려면 이들간 지속적이고도 활발한 상호작용적 학습과정이 필요. 따라서 공급자-사용자간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경향이 높음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1985, 1990, 1995) 및 연장표(1998)
 주1: 각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는 전산업의 생산유발계수 평균치('98의 경우 1.756)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 크기로 표시한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영향력계수는 후방연쇄효과를, 감응도계수는 전방연쇄효과의 정도를 나타냄.
 주2: 각 산업의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그림左)는 '98년도 산업연관표(연장표)의 대분류 기준이며,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감응도계수(그림右)는 각년도 산업연관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구해진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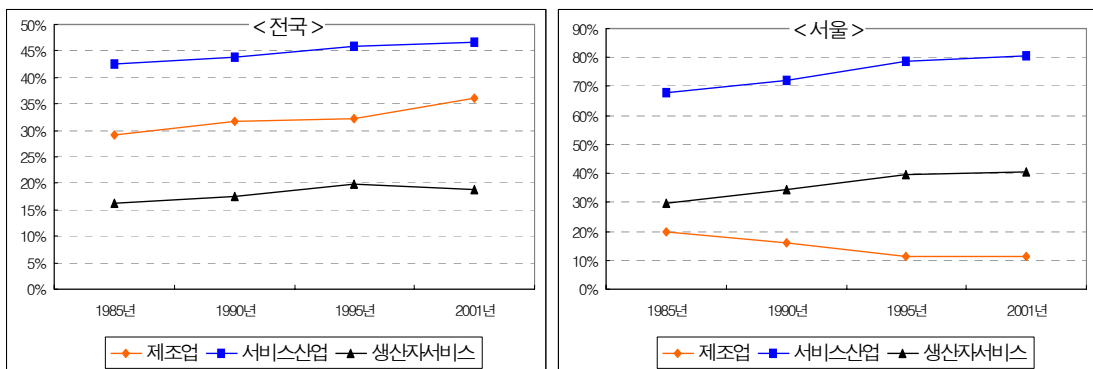
[그림 1] 산업별 전후방연쇄효과(左)와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감응도계수(右)

생산자서비스 왜 대도시 입지인가?

- 생산자서비스는 서구 선진국들의 예에서처럼 주로 대도시에서 집중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입지요인 때문임
 - 자본, 고객, 정보에 대해 유리한 접근성
 - 관련 분야의 숙련된 전문인력 풀 형성 등 국지화 경제의 이점
 - 대도시의 양호한 인프라 활용, 다양한 분야의 기업 및 전문가들과의 교류 가능성 증대 등 도시화 경제의 이점
 - 대도시가 줄 수 있는 다양한 혁신환경의 활용 이점

대도시 서울의 생산자서비스 성장과 분포 특성

- 2001년 기준, 국내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서울 집중정도는 사업체의 34.0%(59천개), 종사자의 44.0%(734천명)에 이룸
 - 생산자서비스에 대한 분류는 연구자 및 연구의 목적에 따라 상이. 이 글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KSIC 65), 보험 및 연금업(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7), 부동산업(70), 사업서비스업(72~75)을 의미
 - 생산자서비스 중 서울 집중도가 가장 높은 부문은 고차 생산자서비스를 포함하는 사업서비스로 전국 사업체의 39.3%, 종사자의 52.8%가 서울에 집중하고 있음
 - 이외 금융 및 보험업이 사업체, 종사자 각각 전국 대비 23.8%와 37.2%, 부동산업은 각각 33.8% 및 3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서울의 경우 생산자서비스 부문은 2001년 GRDP 기준으로 서울 전 산업의 40.8%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부문임
 - 국내 생산자서비스 부문은 GDP 기준으로 전 산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의 생산자서비스 부문은 GRDP 기준으로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자료: 통계청 GDP 및 GRDP자료

주: GDP 및 GRDP에서 산업부문을 100으로 계산한 각 부문의 비중임.

[그림 2] 전국 및 서울 주요 산업부문의 비중

- 사업체 기준으로는 생산자서비스가 서울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에 불과하지만 종사자수에 있어서는 18.9%를 차지하고 있어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고용효과 또한 큰 것을 알 수 있음
- 지난 10년간 서울의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사업체 및 종사자 증가는 고차 생산자서비스 부문이 주도
 - FIRE산업의 경우 1991~2001년 사이 사업체 및 종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4%와 1.8%에 불과했음
 - 반면 고차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경우 동기간 사업체, 종사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5.3%와 5.8%에 이룸
 - 고차 생산자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져 동기간 사업체 및 종사자가 각각 연평균 8.4%씩 증가하였음
- 서울 FIRE산업의 분포를 기업본사의 입지를 통해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도심, 강남, 영등포지역 등 3개 지역에 72.1%가 집중
 - 도심지역의 경우 통화금융과 보험·연금업 및 관련 서비스업의 기업본사들이 집중
 - 강남지역의 경우에는 제2 금융권인 비통화금융업 본사들이 비교적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부동산업 및 관련 서비스업에 특화된 양상을 보임
 - 영등포 지역은 증권중개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관련 서비스업 본사들의 집중적인 입지가 두드러짐

[표 3] FIRE산업 기업본사의 서울 주요지역 분포 (단위: %)

지역	통화 금융	비통화 금융	금융관련 서비스	보험· 연금업	보험·연금 관련서비스	부동산업	부동산관련 서비스	FIRE 본사
도심	43.2	19.8	17.0	32.0	51.4	22.7	21.0	25.6
강남	18.9	27.8	19.1	22.0	14.3	45.5	45.7	31.8
영등포	13.5	12.7	59.6	12.0	8.6	3.4	10.5	14.8
3개 지역	75.7	60.3	95.7	66.0	74.3	71.6	77.1	72.1

주: 도심지역은 종로구와 중구, 강남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 영등포지역은 영등포구를 의미.

- 강남지역이 서울 고차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나타남
 - 강남지역은 모든 고차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분포 비중에서 수위를 나타내고 있어 서울 고차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음
 - 도심지역의 경우에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타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분포비중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영등포지역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만 비교적 높은 분포비중을 보임
 - 이밖에 마포구와 송파구가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와 기타 전문·경영·과학·기술 관련 서비스 부문의 분포비중이 상기 3개 지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동대문구와 성북구에 연구 및 개발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가 서울의 9.3% 및 8.1%로 비교적 높게 분포하고 있음

[표 4] 고차 생산자서비스산업의 서울 주요지역 분포 (단위: %, 개, 명)

부문	지역	3개 지역						서울시		
		도심		강남		영등포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정보처리 및 컴퓨터	6.1	7.8	49.3	52.9	11.4	13.0	66.8	73.7	5,532	104,459
연구 및 개발	15.8	10.9	42.2	36.4	7.5	7.7	65.5	55.0	531	12,078
법무 및 회계	18.5	19.3	43.5	45.8	5.8	6.4	67.7	71.4	5,873	40,366
기타 전문·경영·과학·기술	14.0	11.8	38.7	49.8	5.9	8.7	58.6	70.3	11,741	111,299
고차생산자서비스(계)	13.3	11.3	42.4	49.8	7.2	10.0	62.9	71.1	23,677	268,202

서울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특성과 향후 과제

- 서울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성장패턴과 분포패턴의 두 가지 측면에서 종합해 볼 수 있음
 - 첫째, 성장패턴의 측면에서 지난 10년간 서울 생산자서비스의 성장률 고차 생산자서비스 부문이 이끌었으며, 특히 1990년대 IT붐을 타고 성장했던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가 그 선두에 있었음
 - 둘째, 분포패턴의 측면에서는 FIRE산업과 고차 생산자서비스 부문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FIRE산업의 경우 각 세부 부문별로 지역별 특화가 뚜렷하여 전문화된 국지적 클러스터들이 발전하고 있음
- 반면 고차 생산자서비스의 경우 일부 업종에 한해 도심지역 분포가 비교적 높을 뿐, 강남지역에 서울의 절반정도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FIRE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집중도가 강함

○ 서울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향후 과제

- 기업적 측면에서는 공급자-사용자간 지속적이고도 역동적인 상호작용적 학습과정을 활성화하여 경쟁력 강화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함
 -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성장 한계로 지적되는 기업 측면의 한 요인은 전문화된 기업활동을 외부 서비스기업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주요 기업활동에 대한 통제력 상실과 노하우 취득 기회의 상실임
 - 공급자-사용자간 상호작용적 학습과정이 핵심 기업활동에 대한 노하우, 경쟁력, 통제력 등을 잃지 않고 네트워크 관계 내에 내부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서울시로서는 기업·산업환경과 관련된 제도들을 개선하는 노력 필요
 - 정보·지식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하는 생산자서비스의 경우, 시장개방이 중·장기적으로는 서울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
 - 따라서 서울시로서는 중앙정부와 협력 하에 서울 서비스산업의 경쟁환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시장개방과 관련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경우 지식·기술 집약도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산업환경의 변화가 특히 심하며, 따라서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서울시·민간 상호간 해당 산업분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급속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김광선 · 서울시경개발연구원 위촉연구원

kskim@sdi.re.kr